십자가복음의 의미 안에 들어있는 0과 1이라는 디지털 기호를 코드로 성경 말씀을 풀어내는 태승철의 오늘의 번제 <교인이라면 세 가지 암호를 대라!>의 줄거리 :

약속의 명단에 있는 교회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들에게 보낸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 명단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세 가지 표시를 주십니다. 뱀의 표시, 나병의 표시, 그리고 물과 피의 표시입니다. 이 세 가지 표시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도 서로서로 참 교인임을 식별하는 암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 교인 식별 암호의 의미를 알아봅니다.

교인이라면 세 가지 암호를 대라!

(출애굽기 4:1~9)

1.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2.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5.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6.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7.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8.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9.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본문의 말씀은 약속의 명단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지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약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는 약속의 명단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곧 교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명단에 있는 자들은 조상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세는 이들이 어떻게 자신을 믿을 수 있겠냐고 질문을 하고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받아들이게 하는 표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 가지 표적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첫 번째 표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그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두 번째 표적으로 품에 넣었던 손에 나병이 생겼다 사라지는 것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럼에도 믿지 않는다면 세 번째로 나일강 물을 떠서 땅에 부으면 피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표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는 증거로 삼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표시들이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이 표시들은 기본적으로 기적의 성격을 지니는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의 표적, 나병의 표적, 물과 피의 표적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표적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확인하게 되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수 있는 표적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왜 이러한 세 가지 표적을 표시로 삼으신 것일까요? 굳이 지팡이를 쓰시겠다면 커다란 사자로 만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다면 사자든 코끼리든 변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오히려 사자나 코끼리가 되는 편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손에 나병이 생기는 표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나병은 저주로 여겼습니다. 굳이 기분 나쁘게 저주로 여겨지는 나병이 생기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손을 품에 넣었다 뺐는데 손가락이 다섯 배 길어졌다가 다시 품에 넣으면 원래의 길이로 돌아오는 기적이 벌어진다면 더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손이 금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또 어땠을까요? 왜 하필 나병이어야 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무섭게 피로 변해야만 했을까요?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실 바에야 포도주로 변하게 하실 수도 있고 올리브기름으로 변하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표적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모세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 번 일어나고 끝나버릴 사건입니다. 기억 속에서나 회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뒤에 일어날 사건들의 규모가 크기에 기억 속에서 지워질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이 임하고 홍해가 갈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라 함은 당사자인 모세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록을 통하여 당사자인 모세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이 사건을 훨씬 더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당시로부터 3,500년 동안 약속의 명단에 있는 자들인 교회는 이 사건을 읽고 또 읽고 끊임없이 접해왔습니다. 당사자들에게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 기록을 읽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볼 표시로 굳이 지팡이가 뱀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나아야만 하고, 물이 피로 변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뱀의 표적, 나병의 표적, 물과 피의 표적에는 분명한 의미성이 있습니다. 이 표적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표시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정한 세 가지 표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약속의 명단에 없는 사람입니다. 세 가지 표적은 쌍방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표시이자 암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에서 '교인이라면 세 가지 암호를 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인의 암호는 뱀의 표적, 나병의 표적, 물과 피의 표적입니다. 본문은 이것에 담긴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서남북 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당신은 교인이 맞습니까? 맞다면 암호를 대시오!'라고 물으면 '뱀 표적, 나병 표적, 물과 피의 표적'이라고 대답하며 서로가 교인임을 확인하는 광경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암호에는

바로 이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암호에는 각각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암호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표적입니다. 뱀은 인간에게 죄를 불러온 사탄을 상징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죄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사는 자들을 뱀이라고 지칭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를 가져온 자가 뱀이고 뱀의 유혹에 빠져 죄에 찌들어 있음을 모른 채, 죄의 효과와 죄의 힘을 발휘하는 모습을 자연인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자들이 뱀이자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빗나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에 다른 존재감을 느껴야만 합니다. 무엇인가 다른 존재가 있다는 느낌을 가져야 나의 존재가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은 비어있기에 좋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채워지고자 합니다. 이처럼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 있음을 찾고, 채워지기 위해 좋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빗나감이 발생합니다. 사람은 본래 오직 하나님의 있음을 존재감으로 느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유일한 좋음임을 믿어서 열렬히 소망하고 바랄 때 마음이 채워지는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은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으로부터 빗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빗나간 사람은 하나님 대신 땅에서 있음과 좋음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치 뱀이 땅을 기어다니듯이 마음을 땅에 붙인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로부터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표적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뱀의 꼬리를 붙잡자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세상 것들의 존재감을 느낄 때 하나님의 존재감을 망각하게 됩니다. 또한 세상 것들의 좋음을 맛있고 좋게 여김으로 갖고 싶어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좋음을 망각하게 됩니다.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이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뱀의 꼬리를 붙잡음이란 바로 이러한 상태를 깨닫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명단에 있는 교인이 아니라면 자기가 뱀이자 독사의 새끼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마음의 배를 세상에 붙이고 사는 것이야말로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약속의 명단에 있는 교인이라면 이것을 압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좋겠고, 건강하면 좋겠고, 미래가 보장되면 좋겠고 이 땅의 것에 대해 기쁨을 기대하는 것이 독사의 새끼로 사는 것임을 압니다. 이처럼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인식하

는 것이 뱀의 꼬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독사의 새끼로 태어났다. 나는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이고 뱀처럼 기어다니는 독사의 새끼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명단에 있는 교인뿐입니다.

여기서 다소 이상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뱀을 안전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꼬리가 아닌 목을 눌러야 합니다. 꼬리를 붙잡으면 뱀은 몸을 틀어 손을 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뱀의 꼬리를 붙잡으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뱀의 꼬리를 붙잡음은 내가 독사의 새끼라는 것을 인식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좋아하는 죄의 체질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아는 자들이 약속의 명단에 있는 교인입니다. 이길 수 없는 죄가 내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나는 독사의 새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암호는 품에 넣은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낫는 표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병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나병이 손에 발생했습니다. 이왕이면 얼굴에 발생했다가 낫는다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손에 나병이 발생하게 하신 것일까요?

손을 품에 넣었다는 것은 가슴에 대었음을 의미합니다. 손은 내가 이 세상에 대해 주체가 됨을 상징합니다. 스스로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감정과 의지가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손을 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혹은 일을 그만둘 때는 ‘손을 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식에서 손을 뗀다고 하고, 자녀 문제에서 손을 뗀다고 합니다. 이처럼 손은 주체적 삶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 삶에 대해서 내가 손을 대며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 저주임을 아는 자들이 약속의 명단에 있는 교인입니다.

내가 세상일에 대해 생각만 해도 손을 대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떻게 안정적 노후를 보낼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내 미래에 대해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을 대는 것이야말로 나병이 상징하는 저주입니다. 손을 품에 넣으니 나병이 발생합니다. 이는 곧 세상을 향해 갖고 있는 생각을 따라 손대는 것이 저주임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삶에 대해 내가 주체가 되고 책임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저주입니다.

사람들은 삶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것을 성실함과 근면함이라 이해합니다만 실은 저주받은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을 저주하시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창세기 3장 17~19절을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

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버둥대며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삶을 향하여 쉼 없이 노력하고 수고하며 사는 것이 저주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죽지 못해 사는 심정으로 노력하고 수고하며 땀 흘리며 사는 삶이 저주입니다.

이 세상 것이 맛있다고 여기는 것이 죄입니다. 독사의 새끼가 되어서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이는 죄가 없었다면 삶이란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의 주권대로 진행됩니다. 내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주권의 흐름을 따라 물놀이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사람은 독사의 새끼들이 되었습니다. 뱀처럼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인 상태에서 기어다니게 된 것입니다. 이로부터 나타난 일이 계속해서 삶에 대해 손을 댑니다. 내가 해야만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강박감을 느낍니다. '내가 해야 한다. 내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내가 이루어야 한다. 내가 성과를 내야 한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 내가 하지 않으면 망한다. 누가 나를 돌보겠는가.'라고 하는 책임감이 저주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은 지식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있게 하십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면 빠지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물결을 따라 뱃놀이하면 됩니다. 머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머리를 빠지지 않게 하려고 온갖 노력과 수고를 다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교인들뿐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구나 삶에 대해 책임감과 기준을 가지고, 있게 하고 없게 하려는 노력과 수고를 합니다. 이 당연한 노력과 수고는 근면함과 건실함이라 평가됩니다만 실은 저주받은 상태임을 교인만은 알고 있습니다. 손을 품에 넣자 나병이 발생하는 손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교인의 암호가 됩니다.

세 번째 암호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표적입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암호의 해결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의 물을 떠서 땅에 부으면 피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 중에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마실 물이 없어지는 재앙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선 두 표적과 마찬가지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교인으로 알아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교인으로 알아보며 서로 약속의 명단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확인하는 암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살게 하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일강은 사람과 가축이 마실 물이고, 농사를 짓기 위한 농업용수이며, 빨래 등을 하기 위한 생활용수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애굽 사람들의 삶은 나일강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식수인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 피를 마시는 자들이 교인임을 의미합니다. 좀 끔찍하다고 여겨지는 표현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의 연관성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해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3~5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인이 마셔야 하는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교인은 뱀의 꼬리를 잡듯이 내가 독사의 새끼임을 파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파악한 죄에 내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교인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피로만 이길 수 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된 이 표적을 아는 자가 교인입니다. 그런데 물과 피는 어떤 용도 때문에 생긴 것인지를 모릅니다.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인 독사 새끼가 된 상태입니다. 이 상황을 종결짓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 세상에서 독사 새끼가 되어서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이고 온갖 것들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임을 교리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잘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피가 삶의 현장에서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이고 사는 독사 새끼인 나를 죽이기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죽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먹지 않는다면 뱀 꼬리를 잡은 상태에서 뱀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교리적으로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만, 뱀의 꼬리를 붙잡듯이

자기 죄를 붙잡은 상태에서 여전히 죄에 먹히고, 죄에 노예가 되고, 죄에 의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음으로써 꼬리를 잡힌 뱀에게 물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삶의 현장에서 마셔야만 합니다.

뱀의 표적, 나병의 표적, 피의 표적이라는 세 암호는 반드시 한 세트로 같이 가야만 합니다. 삶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먹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고백해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효과가 나타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인 채 끊임없이 세상 것을 좋아하고 맛있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저주받은 나병의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삶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생각하므로 손을 댑니다. 이것은 이미 저주가 발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흘러나오는 대로 살면 되는데 계속 생각하는 이유는 저주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저주받은 상태는 예수님의 죽음을 먹음으로써 매듭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먹음으로써 '나는 독사의 새끼가 아니다. 나는 나병 환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장자다.'라고 생각할 때 마음은 땅에 붙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남은 떨기나무인 지정의(知情意) 육은 하나님의 에너지와 하나님의 불로 살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기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인의 정체를 알 수 있게 하는 세 가지 암호입니다. 우리는 뱀의 표적, 나병의 표적, 물과 피의 표적이라는 세 가지 암호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독사의 새끼 됨을 중단할 수도 없고 나병의 상태를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암호를 기억함으로써 내가 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암호를 아는 자들은 삶의 현장에서 형통하기를 바라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암호를 아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대단한 일을 이루려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암호를 아는 자들은 삶의 현장에서 활성화되려고 하는 독사의 새끼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죽이는 자들입니다. 또한 저주가 작동하려고 하는 나병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죽이는 자들입니다. 죄와 저주를 때려죽이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성공이든 형통이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대로 살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성공하려는 자, 형통하려는 자, 승진하려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삶의 현장에서 내 속에 있는 독사의 새끼를 때려죽이고, 끊임없이 나타나는

나병의 증상을 때려죽이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끊임없이 음료로 마시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할 일은 죄와 저주를 때려잡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목표를 이루겠다, 성공하겠다는 의도는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좋은 형태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염려 마시고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들이마심으로써 죄와 저주를 반드시 때려죽여야만 합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인 감독을 때려죽일 때와 마찬가지의 비장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고개를 내미는 독사의 새끼와 나병을 반드시 때려죽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싸움입니다. 뱀의 표적, 나병의 표적, 물과 피의 표적이라는 세 가지 암호를 기억하며 교인 됨의 정체를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싸움을 줄기차게 해나가는 자들이 교인이며 약속의 명단에 예정된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애굽인 감독을 때려죽인 비장함의 각오를 가지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먹음으로써 독사의 새끼로 만드는 죄와 저주받은 자로 살게 하는 나병의 증상을 끊임없이 때려잡는 진짜 교인들로 오늘 하루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